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튼튼한 저널리즘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성 회장은 대구일보 지회장, 대구경북기자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2014년부터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이번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투표자의 84.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정규성

1965년생
1992년 대구일보 취재기자 입사
(전) 한국기자협회부회장
(현) 대구일보 편집국 서울정치부 부국장대우
(현) 한국기자협회 제45대 회장 (임기2년)

Q. 제45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간략한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중점을 두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전국 1만여 기자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언론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기자들의 위상 또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튼튼한 저널리즘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후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소송, 해직기자 사태 등 특별위원회도 강화했습니다.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며 각 언론사 기자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A. 기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기자협회 산하에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언론소송대책특별위원회, 해직기자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당면한 현

안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자유특위는 조사 소위, 대외협력관계 소위, 저널리즘강화 소위, 기자포럼 소위 등 4개의 소위를 두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통해 대전일보 기자 해고 사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여하한 일들에 관해 사례를 모으고 특위 또는 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소송대책특위와 해직기자대책특위도 조만간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찾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기자협회가 늘 회원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Q. 회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론직필(正論直筆)은 기자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도(道)입니다. 바르게 논하고 본대로 써야 합니다. 기자의 일은 곧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며, 이는 곧 사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펜을 권력 삼

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역사를 그릇되게 기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 호랑이처럼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Q. 지역 언론사에 몸담고 계시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통합 저널리즘 구현’이라는 선거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등 통합 저널리즘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신지요?

A. 제45대 기자협회 집행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통합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조화와 균형의 집행부가 갖춰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역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통합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속한 기자들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가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Q.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이 위기에 대응하고 저널리즘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기자들의 근무 여건은 물론, 언론 지형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속보 경쟁과 상업주의 등으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언론 현실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르고 공명정대한 언론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저널리스트의 임무를 묵묵히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가 다양해져도 품격 있는 저널리즘은 흉내 낼 수 없으며, ‘대체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전히 각종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사실을 좇고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기자 사회 전반에 본보기가 되어 저널리즘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협회도 그런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보도를 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자협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A. 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자살보도 윤리강령 및 권고기준을 마련해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가이드라인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자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수습기자 교육 단계부터 일선 취재기자과 데스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에 이르기까지 보도준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현장에서 실천·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보도준칙을 이미 제정하여 기자협회보를 통해 곧 공표할 예정이며, 후보자가 확정되는 대로 기자 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협회에선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존중의 정신에 근거해 각종 보도준칙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보도 일선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나 기자협회가 나서서 기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이론과 실재가 괴리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신중한 언론 보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작업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언론은 사회의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이나 다양한 토론의 장(場) 역할을 하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중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통합의 제1조건은 소통입니다. 언론은 기꺼이 소통의 장이 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공론장이라는 사회과학적 정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 이진숙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